국내 완성차 4개사 내년 신차 15종 출시

아반떼·GV80·쏘렌토·XM3·트레일블레이저 등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차 판매 제고 '박차'

자동차 업계가 올해 판매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한 가운데 내년에 공격적인 신차를 선보이며 판매 제고에 나선다.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등 완성차 4개사가 총 15종의 신차를 쏟아낸다.

2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먼저 현대차는 아반떼 풀체인지, 투싼 풀체인지, NE EV를 투입한다. 아반떼 풀체인지는 지난 2015년 9월 6세대 아반떼 AD를 출시 이후 5년 만에 풀체인지 되는 7세대 모델로 프로젝트명은 CN7이다.

투싼 풀체인지는 지난 2015년 현행 3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4세대 풀체인지 모델이다. 현대차의 첫 전기차 전용 모델인 NE EV는 현대차의 차세대 장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세단과 SUV의 장점을 결합한 크로스오버 형태로 설계, 개발되고 있다.

현대차의 고급브랜드인 제네시스는 GV80과 GV70을 투입하며 SUV 라인업을 강화한다. 제네시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브랜드 최초 SUV, GV80의 연내 출시가 결국 무산되면서 연말 공개행사 개최와 무관하게 소비자 인도는 내년 1월 중순께 시작될 전망이다.

판매량 감소가 눈에 띄는 G80도 완전변경 출시가 예고된 상태다.

신형 G80은 차세대 디자인 정체성이 반연돼 내·외관 디자인이 변경되고 GV80과 공유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된다. 제네시스 3세대 신형 G80은 내년 상반기(2-3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기아차도 최근 출시한 신형 K5를 비롯해 차급별 SUV 신차를 계획하고 있다. 우선 최대 관심 모델인 쏘렌토 완전변경이 예정돼 있다. 중형 SUV 왕좌를 탈환할 모델로 이목을 끈다.

신형 쏘렌토는 지난 2015년 3세대를 선보인 이후 5년 만에 완전변경된 4세대 모델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플랫폼부터 파워트레인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신규 플랫폼 적용으로 차체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경차 모닝이 부분변경 시기가 돌아온다. 소형 SUV인 스토닉 부분변경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준중형 SUV인 스포티지 역시 완전변경 모델 출시 시점이다.

르노삼성은 공격적인 신차 출시로 내년 판매 제고를 계획하고 있다. 도미닉 시뇨라 사장은 2020년 6종의 신차 출시를 선언한 바 있다.

첫 타자는 소형 SUV급인 XM3가 될 전망이다. XM3는 르노삼성이 르노의 쿠페형 SUV 아르카나를 기반으로 개발한 크로스오버 모델로 크기는 현대차의 서브컴팩트 SUV 코나와 소형 SUV 투싼 사이에 위치한다. 엔진은 TCe 150 가솔린 엔진이 장착, 최고출력 150마력이다.

여기에 상반기 중 QM3 완전변경을 내놓을 예정이다. 르노의 전기차인 조에도 국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상품성을 개선한 SM6, QM6, 마스터가 대기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준중형 SUV급인 트레일블레이저를 출시한다. 부평공장에서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트랙스 후속모델 출시도 언급된다.

쌍용차는 내년 이렇다 할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 이미 올해 티볼리 부분변경을 내놨고, 코란도 역시 완전변경을 선보여서다. 렉스턴스포츠도 지난해 출시됐다. 당초 예상됐던 SUV 순수전기차의 경우 2021년에나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자동차산업 생산력은 세계 7위로 내려앉았고 글로벌 100대 부품업체 수에서도 중국에 밀려나 4위에 그쳤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내년 내수판매는 업계의 적극적인 신차 출시,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지원 정책 등으로 올해 2.6% 감소에서 1.7% 증가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후성 기자

제네시스 'GV80'

르노삼성 'XM3'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내년 국내·외 자동차 판매 증가할 듯"

부품업계 대형사 위주 재편 전망

내년 한국 자동차 업계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차 변화가 빨라지며 부품업계가 대형사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세계 자동차시장 판매가 올해는 4.8% 감소가 예상되지만 내년엔 중국, 인도, 동유럽 등지에서 회복되며 0.9% 증가가 전망된다고 23일 밝혔다.

김 이사는 내년엔 수출대수는 2.5% 증가하고 수출금액은 전기동력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고급차 등 비중 확대에 힘입어 4.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물량 측면에선 내수와 수출이 모두 줄었지만 수출금액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전기차 확대로 5% 이상 증가해 실질적 성장을 했다고 평가했다.

내수는 신차 확대(올해 9종→내년 12종)와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으로 증가율이 올해 -2.6%에서 내년 1.7%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내년엔 수입차 판매가 29만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함께 수출전략차종 개발, 저공해자의무보급제 등 환경규제 강화, 중국차 글로벌시장 진출 본격화 등의 이슈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자동차부품업계는 대형화, 고도화하고 있으며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추세가 이런 움직임에 속도를 더한다고 말했다. 이미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매출 비중이 2014년 1.0%에서 2019년 7.4%로 높아졌고, 만도는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매출비중이 2013년 1.0%에서 2019년 13.0%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임후성 기자

BMW그룹, 올해 전기화 차량 50만대 판매

내년 전기차 iX3·후년 i넥스트·i4 양산

BMW가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화 차량 판매 50만대를 달성했다.

BMW그룹은 최근 독일 뮌헨 BMW벨트에서 세바스찬 맥켄센 BMW 수석 부사장이 50만번째 BMW 전기화 차량 'BMW 330e'를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23일 밝혔다.

BMW는 2009년 하이브리드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해 순수 전기차 i3와 i8을 출시하며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X5, 3, 7 등 라인에서 같은 성능을 내는 'i 퍼포먼스' 모델을 선보이며 현재 총 12개 전기차 모델을 시장에 선보였다.

최근에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동차의 장점을 모두 갖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BMW는 앞으로도 전기화 차량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X3의 순수 전기차 모델 iX3을 출시한다. 또 2021년까지 중형 그란 쿠페 i넥스트 모델과 i4 양산을 위해 각각 독일 딩골핑 공장과 뮌헨 공장에서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연합뉴스

중흥장학회, 고교생 88명에 장학금 전달

광주 향토기업 중흥건설그룹(회장 정창선·사진)의 장학재단인 중흥장학회는 연말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88명에게 총 8천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23일 중흥장학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 등을 통해 장학생 추천을 받았으며 장학금은 해당 학생들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정창선 회장은 "예전처럼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모든 회사 임직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장학금인 만큼 그 뜻을 되새겨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큰 희망과 꿈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매년 회사의 수익 일부를 장학 사업에 쓰기위해 중흥장학회를 설립했다"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금 규모를 매년 늘려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흥건설그룹은 지역인재를 우선 선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을 위한 장학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 기부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주택전시관 오픈 때 화환대신 받은 사랑의 쌀을 지역 지자체 사회복지과에 10년 이상 기부를 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김명군 금호주택 대표이사, 31사단 후원금 기탁

㈜금호주택은 김명군 대표이사가 23일 육군 제31보병사단에 육군장병 희망 후원금으로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31사단 감사나눔실에서 진행된 후원금 전달식에는 소영민 제31보병사단장, 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사진〉

김 대표이사는 "이 후원금이 나라와 지역안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따뜻한 연말연시가 돼 군 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소영민 사단장은 "장병들의 따뜻한 연말을 위해 후원금을 주신 금호주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장병들의 꿈과 목표를 구체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은성 기자